

마태복음 28:1-10 예수께서 부활하시다

1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4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6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뵈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8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9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흘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이틀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 세시 즈음에 돌아가시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묻히시고 토요일은 온 종일 무덤에 계셨고 주일 아침 해 뜰 무렵에 부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정 부분이라도 걸리면, 하루라고 셈합니다. 따라서 만 사흘은 되지 않지만, 사흘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6:21, 17:23, 20:19)
-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났었는데, 부활하실 때에도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떨니다. 이 병사들은 아마도 전쟁을 치러본, 죽음을 많이 경험한 병사들일텐데 이들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뭔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산 병사는 죽은 사람처럼 되고,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 5 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라는 표현은 (Jesus, the crucified one) 익숙한 표현, 일종의 고유 명사가 된 표현이고 신약의 다른 편지서에서도 사용됩니다 (고린도 전서 1:23, 2:2, 갈라디아 3:1).
-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의 말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6 절에 그가 살아나셨다 라는 부분을 영어 번역으로 살펴보면 수동태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원문을 따져보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부활 시켰다고 하는 의미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일 것입니다.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인들에 의해 목격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할 일을 지시받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인들이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일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시대 상황인데,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1-15 경비병의 보고

11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12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 주고 13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15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서술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이 당시에 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이 책을 적고 있는 마태는, 이런 소문을 유대 크리스찬들이 들어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소문이 만들어진 경위를 적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라는 사실을 한번 알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을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16-20 제자들의 사명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17 그들은 예수를 뵈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 마태는 마지막을 아주 짧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산에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표현은 열한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왔었는데 (10 절, 나의 형제들),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사명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들 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 제자를 삼는 것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